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성희롱 연구동향 분석

이화진\*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성희롱 연구의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Korea Citation Index)에서 2003년에서 2019년까지의 '성희롱'을 검색어로 한 학술논문 중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의 연구물 302편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학술논문에서 1,978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고, 정제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999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키워드를 출현빈도에 근거하여 '성희롱'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확인하였고, 6회 이상 사용된 45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지표인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을 활용하여 성희롱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희롱 연구는 성희롱, 성폭력, 직장, 성차별, 인식, 예방교육, 폭력, 차별, 양성평등 등을 주제로 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둘째, 키워드 중심성 분석결과,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직장, 예방교육, 차별, 여성, 피해자는 연결·근접·매개중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근로자, 책임, 통념은 연결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키워드와 가깝게 위치하여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았고, 법, 대학생, 대처방식, 청소년, 불법행위,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 사이에 위치하여 매개역할을 하고 있었다. 넷째, 성희롱 연구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총 65개의 키워드들을 키워드 클라우드로 도식화한 결과, 피해자, 고용주, 여성, 근로자, 대학생, 운동선수, 요양보호사, 의사, 비정규직, 교수, 간호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희롱 연구는 그룹별로 직장내 성희롱, 법률관계, 피해자,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대학 실태 등으로 구분되었다. 2018년 이후에는 미투운동 키워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성희롱 연구 관련 키워드 네트워크는 집단을 형성하며 매우 밀접하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주제어 : 성희롱,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연구동향

\* 제 1저자 및 교신저자: 한양여자대학교 조교수 (wjjinlee@hywoman.ac.kr)

## I. 서론

한국 사회에 성희롱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법률 용어로 정착하였고, 지난 20년 동안 성적 언동과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한희정·전해정, 2015). 최근 성희롱 피해자들이 그 실상을 고발하는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들이 언론에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미투운동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폭로하고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출발했다. 한국에서는 2018년 1월 29일 현직 검사 서지현이 한 언론사 뉴스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운동을 촉발시켰다. 이후 연극연출가, 시인, 극작가, 배우, 정계인사, 대학교수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가해자들이 지목되어 이에 대한 성폭력 피해 고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는 여성의 교육기회 증가와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지면서 미투운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계속 쟁점화 되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정아, 2019). 이러한 미투운동의 확산은 성희롱 및 성폭력 이슈와 관련된 피해사례를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던 여성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나타나는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2018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의 미투운동이 갖는 의의 중 하나는 여전히 한국사회의 여러 곳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투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현상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다. 최근 5년 동안 성폭력과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049명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가장 많은 징계자가 나온 곳은 다름 아닌 교육부였다(KBS, 2020). 또한 권력형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국회 보좌관·비서관·비서들은 착잡함을 토로하였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시장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연이어 일으킨 성추문이 ‘일부 제왕적 자치단체장들의 우발적 비행’이 아니라는 것이다(한국일보, 2020). 이는 ‘권력자들이 여성을 비롯한 약자를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는가’를 드러낸 파편에 불과하다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입을 모았다. 자치단체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는 지자체보단 조금 낫겠으나, 국회 역시 성차별·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도 했다(한국일보, 2020). 여성가족부(2019)에

서 재직자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성희롱 피해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여성, 30대 이하,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업, 30-99인 그리고 500인 이상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를 경험했다고 5.3%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3.4%,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2.7%,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 1.5%, ‘포옹, 손잡기, 신체 밀착, 안마, 입맞춤 등의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2%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성희롱 행위자가 ‘나의 상급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은 83.6%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사회상을 반영하는 성희롱 관련 이슈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20년이 지난 현재 연구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성희롱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서상희(2017), 한희정·전해정(2015)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희정·전해정(2015)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고, 서상희(2017)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성희롱 연구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한 논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성희롱 관련 이슈는 2017년 말 미투운동 이후에 양상이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성희롱 관련 연구에서도 연구주제들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성희롱 관련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연구주제가 무엇이고,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동향 분석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나 최근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박수정, 2014; 손미·정주훈·김영환, 2016; 신세인·하민수·이준기, 2017; 우성미·오소영, 2019; 이성용·김진호, 2017; 임정연·윤지영, 2018; 김계원 외, 2011; 조규락·김찬희, 2016; 최영출·박수정, 2011; 최은경, 2019). 기존에 동향연구라 하면 연구범위가 특정 분야 혹은 특정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을 연구의 주제, 분석방법, 연구대상 등 연구자가 주관적으로 제시한 분석틀에 맞춰 분석내용을 나열하거나 빈도 등의 기초통계를 제시하는 것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우성미·오소영, 2019),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특정 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단어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다(최영출·박수정, 2011). 즉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가 설정한 분석기준에 주관성이 개입되고 연구의 중점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최근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동향이 증가하고 있다(박수정, 2014; 신세

인·하민수·이준기, 2017; 이성용·김진호, 2017). 다시 말해,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에 나타난 단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와 강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특정 연구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잘 드러내 줄 수 있다(조규락·김찬희, 2016). 따라서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동향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개념들 간의 관계와 연구의 방향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어 성희롱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보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양성평등을 위한 성희롱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성희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학술지는 그 학문 분야의 이론 혹은 실제적 관심을 반영하고, 이론체계와 연구방법의 전환 방향을 알려주며, 동시에 그것들이 변화·발전하여 온 발자취를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김계원 외, 2011)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연구자가 연구물의 초록에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키워드인데, 이는 연구물의 대표성을 포함하는 주요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이 연구는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성희롱 연구의 구조를 규명하여 성희롱 연구 지식 형성에 기여하고, 성희롱 연구의 흐름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학술지의 성희롱 연구의 연구물 특성을 파악하고,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빈도와 중심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II. 문헌 고찰

###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과 학문적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사전적 개념을 먼저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성희롱과 관련된 용어는 크게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폭행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의 개념이나 영어 표현 역시 연구자에 따라 표기를 달리하여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성희롱과 관련된 개념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더불어 성희롱 관련 문제의 제기와 고발이 촉발되면서 2018년부터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투 역시 성희롱 관련 용어에 포함시켰다. 특별히 우리나라

라에서 미투운동이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권력 관계에서 피해자 위치의 취약성으로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임계치를 넘어 누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보화, 2019). <표 1>과 같이 성희롱 관련 개념들을 나누어 구분할 수 있으나 실생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한다.

〈표 1〉 성희롱 관련 개념의 사전적 정의

구분	사전적 정의
성희롱 (Sexual Harassment)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 크게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분류되며, 남녀차별로 간주된다.
성폭력 (Sexual Violence)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정신적·육체적 손상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말.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에 관련한 범죄를 전부 아우르는 개념
성추행 (Sexual Abuse)	법적 용어는 강제추행이다. 추행(醜行)이란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성폭행 (Sexual Assault)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주는 성폭력
미 투(Metoo)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달아 고발한 현상

\* 출처 : 다음사전(www.daum.net)

성희롱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고, 그 밖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 개념은 거의 동일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사이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를 ‘사업주·상근자 또는 근로자’로, 상대방을 ‘다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이들 세 가지 법의 유사점은, 성희롱의 방법, 행위 여건, 피해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희롱의 방법을 공통적으로 ‘성적 언동’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행위여건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표 2〉 성희롱 관련 법률 비교

구분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1999년 2월 8일	2005년 7월 29일	2006년 3월 30일
주무 부처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사건처리 및 정책방향 관점	근로환경 보호	인권보호	여성주의적
용어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성희롱
행위자	사업주·상근자 또는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피해자	다른 근로자	불특정	불특정
행위요건	직장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
방법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행위로 인한 피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출처 : 서상희(2017: 287-288) 연구자 수정.

학문적 개념도 법률상 개념과 유사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성희롱 문제가 제기된 사회 및 시대적 배경과 운동의 전개방향과도 맞물린다(서상희, 2017). 미국과 영국의 경우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으나(이나영·김교성·이현정, 2014; Hunt, Davidson & Fielden, 2010), 우리나라의 경우 반성폭력운동을 주도한 여성단체와 상담소, 대학 내 총여학생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이 있다(이미정, 2012). 성희롱과 관련된 개념은 연구초기에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장소, 행위, 가해자의 지위 등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두고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공식적인 권력 차이에서 오는 성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진술 또는 요구를 통해 도구적인 관계가 성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서상희, 2017; 최춘식, 2019). 먼저 서울대학교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는 성희롱을 근로현장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에서 성

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혹은 성별에 기인한 행위의 부과로서 일상생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직장내 성차별로서의 성희롱은 주로 힘과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일어나며, 성과 권력이 주된 구성요소가 된다(이나영·김교성·이현정, 2014; 서성희, 2017 재인용). 또한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행과 신체적 접촉을 통한 추행을 의미하고, 포함하는 개념이다(오삼광, 2011). 이처럼 성희롱의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희롱 개별사건의 특성과 맥락이 다양하기 때문이나, 앞서 살펴본 법률에서 행위요건과 방법, 피해 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성희롱 연구동향 및 네트워크 분석 연구

성희롱 연구동향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은 성희롱 연구동향(서상희, 2017; 한희정·전해정, 2015) 연구와 네트워크 분석(이종임·홍주현·설진아, 2019; 최은경, 2019)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희정·전해정(2015)은 ‘Sexual Harrassment’가 국내에서 ‘성희롱’으로 명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한계를 구명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등재지, 등재후보지에 실린 59편의 성희롱 소재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학 분야와 법학 이외의 학문 분야는 연구주제와 분석 대상, 접근 시각 그리고 개념의 내용 등에서 상이한 특징을 보였는데, 법학 분야는 주로 성희롱의 개념 연구, 법률 검토,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판례 분석,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인 반면에 기타 분야는 성희롱 의식, 실태 및 영향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성희롱 개념과 관련하여 법학 분야는 성희롱이 명시된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기반으로 규정한 반면에 기타 분야는 대체로 현재의 법적 개념을 오해 또는 축소하여 다분히 법적 용어와 다른 의미를 내포했다(한희정·전해정, 2015).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향후 성희롱이란 법적 표현을 섹슈얼 허래스먼트 현상을 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성적 괴롭힘’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상희(2017)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199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등재(후보)학술지 총 17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성희롱 연구의 동향을 학술지,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희롱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105종이고, 사회과학, 복합학 순이었으며, 세부 분야는 법학, 여성학, 간호학 순이었다. 연구주제별

로는 성희롱 실태 연구, 성희롱 정책 및 법률 연구, 성희롱 개념 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별로는 직장인, 대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임·홍주현·설진아(2019)는 국내에서 미투(#Me Too)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의 4,327개의 트윗 자료를 수집해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내용분석을 시도하여 SNS를 통해 미투운동이 어떻게 확산되고,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 여성들은 젠더의 문제가 아닌 권력관계로부터 발생한 위계적 폭력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매개 중심성을 분석 결과, 웹툰 작가에 대한 성추행을 언급한 트윗과 미투운동 관련 명예훼손 트윗이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트윗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권은’과 ‘언제쯤이면’이 많이 등장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주요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종임·홍주현·설진아, 2019). 텍스트 분석 결과, 미투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성폭력 피해를 알리고, 고발함으로써 디지털 공간이 젠더 갈등을 촉발시키거나 동참시키는 공론장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종임·홍주현·설진아(2019)는 미투운동이 그 동안 사법제도나 사회제도를 통해 보호받지 못한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고백이며,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연대’를 전제로 한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했고, 트윗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 사건을 의제화하고 미투운동을 ‘정치 공작’으로 폄하한 진보 논객을 비판하는 등 미투운동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실천적 장의 역할과 함께 대중 미디어와의 상호연동작용을 통해 복잡한 층위의 페미니즘 운동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경(2019)은 미투운동과 성범죄에 대한 국민 인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데이터는 미투운동 시작 전 1년(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29일)과 미투운동 시작 후의 약 7개월간 (2018년 1월 30일부터 2018년 8월 31일)의 성범죄 관련 주요 포털 사이트의 뉴스기사 및 블로그,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미투’, ‘성폭행’, ‘성범죄’ 3가지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미투운동의 전과 후의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 버즈량 분석, 감성 분석, 연관키워드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성폭행’, ‘성범죄’ 키워드의 버즈량 분석 또한 미투운동이 이슈화 된 시점과 마찬가지로 동일시점에서 최고치가 평소 대비 10배 정도 증가함을 근거로 하여 미투운동이 성폭행, 성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둘째, 성폭행의 연관 키워드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성폭행 사건을



여성이 피해자이며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셋째, 성폭행의 연관 키워드를 미투운동 전·후로 비교하였을 때 연관키워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미투운동 발생 전은 범죄에 초점을 두고 ‘처벌’, ‘법률’, 성범죄를 다룬 ‘영화’ 등 단순 제도와 처벌에 관심이 많았다면 미투운동 발생 후에는 미투운동과 연관이 있었던 권력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사’, ‘대통령’, ‘의원’ 키워드의 등장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이 미투운동은 권력형 성폭행과 연관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넷째, 성범죄의 연관키워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성범죄 사건은 여성이 피해자이며 주로 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단어 등장으로 비교적 포괄적인 의미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성희롱 관련 연구동향 및 네트워크 분석 선행연구는 성희롱 개념의 동향분석과 학술지,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경향분석 그리고 미투운동에 대한 SNS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기존의 성희롱 관련 연구동향 연구는 연구물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분석틀에 따라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에 대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면, 이 연구는 연구물의 서지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 연구동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성희롱 관련 네트워크 선행 연구들이 SNS의 빅데이터 등의 상대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실시되었다면 이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연구물의 서지정보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성희롱 연구의 객관적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 Ⅲ. 연구 설계

#### 1. 자료 수집

##### 1) 연구물 추출 및 선정

국내 ‘성희롱’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 Korea Citation Index)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출판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성희롱’을 검색어로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KCI는 한국연

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술단체의 연구물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물 추출을 위해 2020년 6월 20일 기준으로 총 350편의 연구물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연구물 중에서 분석대상 논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KCI 등재지와 등재 후보지만을 대상으로 추출하였고, ‘성희롱’과 관계없는 연구물과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연구물, 중복연구물, 2020년이 끝나지 않은 관계로 2020년 논문을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물을 분류한 결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302편(등재지 245편, 등재 후보 57편)의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물은 ‘논문제목, 저자, 발행연도, 학회명, 학술지명, 키워드’의 서지정보를 추출하였다. 연구물 추출 절차와 선정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물 추출 및 선정 절차

## 2) 키워드 추출 및 표준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를 표준화하기 위해 연구물 추출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연구대상이 된 연구물 302편의 키워드의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 키워드의 정제작업의 기준은 임정연과 윤지영(2018)의 핵심어 표준화 기준을 참고로 하여 <표 3>과 같이 실시하였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연구물 초록에 제시한 것으로 추출된 키워드는 총 1,978개였으며, 우선적으로 같은 키워드가 상이한 키워드로 분류되지 않기 위하여 영문과 한자 키워드 번역과 띄어쓰기, 조사, 기호 제거 작업을 진행하였다. 한글로 번역시 해당 논문의 원문을 참고로 하였으며, 다음으로 동일·유사 의미를 통합하였는데 그 예로 ‘사업주, 사용자, 고용주’를 ‘고용주’로 통일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어를 분리하였는데 그 예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희롱’과 ‘예방교육’으로 분리하였다. 키워드의 정제시에는 연구자와 교육학 박사수료자의 상호 검토를 통하여 연구자의 주관이 최소한으로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999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으며, 이 작업은 Microsoft Office 365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3〉 키워드 정제 기준

기준		정제 전		정제 후
1	국·영문 정리	국문+영문	여성주의, feminism	페미니즘
		국문(영문)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공개적비행폭로
		영문만 제시	sexual harassment	성희롱
2	삭제 작업	띄어쓰기 정리	2차 피해	2차피해
		조사삭제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인간존엄, 표현자유
		무의미한 기호 및 표기 삭제	;, /, · 등	삭제
3	동일·유사 의미 통합	대처양식, 대응 형태, 대응방식, 대처행동		대처방식
		사업주, 사용자, 고용주		고용주
		여성결혼이민자,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
		여자대학생, 여대생		여대생
		여성차별, 성차별		성차별
		양성평등, 성평등, 남녀평등		양성평등
4	복합어 분리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대학 내 성희롱		대학, 성희롱
		성희롱 연구 동향		성희롱, 연구동향

## 2. 자료분석 틀과 분석 방법

성희롱 연구동향의 자료분석 틀은 우성미·오소영(2019)가 여성 리더십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이 연구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한 분석틀로 분석하였는데, 〈표 4〉와 같이 연구물 특성, 연구대상, 분석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물 특성은 해당 연구물의 학술지 게재연도와 학술지 분야별 분류로 구성하였고, 학술지 분류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의 대·중분류 기준을 따랐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연구물 초록에 저자가 제시하는 ‘키워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은 ‘키워드’를 활용한 기술통계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표 4〉 성희롱 연구 분석틀

영역	분석요소	내용
연구물 특성	게재연도	- 학술지 게재연도
	학술지 분류 <sup>1)</sup>	- 대분류(8)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수해양학, 예술 체육학, 복합학 - 중분류(152) : 법학, 행정학, 여성학, 교육학, 학제간연구, 사회복지학 등
연구 대상	키워드	- 연구물 초록의 '키워드'
분석 내용	기술통계 분석	- 연구물 특성 및 키워드의 빈도 및 백분율 분석 - 키워드 출현 빈도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 분석
	네트워크 분석	- 중심성 분석 :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네트워크 시각화

다음으로 정제작업을 거친 성희롱 연구 관련 키워드의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분석절차로는 성희롱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은 연구의 키워드 변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석으로 연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Braam, Moed, & van Raan, 1991). 이를 위해 연구대상 연구물의 연도별, 학술분야별 게재현황과 키워드의 출현빈도와 비율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키워드 45개를 추출하였으며 이 작업은 Microsoft Office 365 Excel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분석절차로는 앞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 45개를 빈도 매트릭스로 변환한 후에 R 프로그램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R은 오픈 소스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로서 통계분석,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이부일, 2017).

네트워크 분석은 중심성의 의미를 이해해야하는데, 중심성은 단어의 구조적 위치와 관계 빈도를 활용해 전체 네트워크에서 단어가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와 네트워크 안에서의 영향력을 의미한다(이화진, 2020). 따라서 각각의 키워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의 분석 값을 구하였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개별 노드가 다른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판단한다(권예진·차명호, 2016). 한 노드의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해당 주제가 다른 주제어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논문에서 해당 주제가 다른 주제어와 빈번히 함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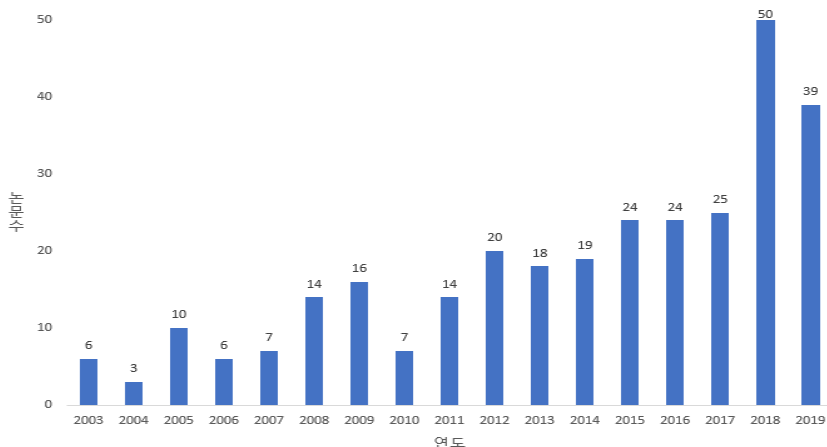
1)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학술연구분야분류표 기준.

하고 있음을 뜻한다(구경수·최연실, 2020).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표로 두 주제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들의 합으로 측정한다(우성미·오소영, 2019). 근접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빠르게 전체 네트워크에 확산시킬 수 있다(정혜영·정혜영·손유진, 2015).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어떤 주제가 두 주제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어떤 주제가 두 주제 사이의 최단경로 위에 위치하는 빈도를 통해 측정한다(김용학·김영진, 2016). 따라서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는 많은 주제들과 연결되어 함께 연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근접중심성이 높은 주제는 짧은 단계로 다른 주제와 연결될 수 있어 연결망에서 빠르게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고, 매개중심성이 높은 주제는 서로 다른 주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융합을 주도하는 주제로 볼 수 있다(우성미·오소영, 2019). 끝으로, 네트워크 시각화 작업을 R 프로그램으로 성희롱 키워드 클라우드와 그룹 네트워크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성희롱 연구물의 현황 분석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302편의 연구물의 연도별 게재현황은 [그림 2]와 같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내 성희롱 연구는 2003년 6편을 시작으로 연구물의 수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말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인 2018년에 연구물의 수가 두 배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연구물의 수는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2018년에 성희롱 연구물의 수가 증가한 것은 성희롱 연구가 시의성에 맞추어 연구물의 양적 수치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2005년과 2006년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성희롱 금지법 개정 이후 연구물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2] 성희룡 연구의 연도별 게재 현황

성희룡 연구의 연도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대분류별 연구현황은 <표 5>와 같다.

&lt;표 5&gt; 연도·분야별 성희룡 연구현황 (n=302)

연도 대분류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총계	비율 (%)
인 문 학	-	-	2	-	-	-	-	-	3	1	1	-	3	-	1	-	1	12	4.0
사 회 과 학	3	2	8	5	6	10	13	5	9	15	12	11	15	17	13	34	28	206	68.2
자 연 과 학	-	-	-	-	-	-	-	-	-	-	-	-	-	-	-	-	1	1	0.3
공 학	-	-	-	-	-	-	-	-	-	1	1	1	1	-	2	1	2	9	3.0
의 약 학	1	1	-	-	-	1	2	-	-	2	2	2	-	-	3	6	-	20	6.6
농수해양학	-	-	-	-	-	-	-	-	-	-	-	-	-	-	-	1	-	1	0.3
예술체육학	-	-	-	-	-	2	1	1	-	-	1	3	-	1	-	1	1	11	3.6
복 합 학	2	-	-	1	1	1	-	1	2	1	1	2	5	6	6	7	6	42	13.9
총 계	6	3	10	6	7	14	16	7	14	20	18	19	24	24	25	50	39	302	100.0

[그림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이 연구물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과학(34편), 복합학(7편), 의약학(6편)의 연구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구물의 수로 보았을 때도 사회과학(206편, 68.2%), 복합학(42편, 13.9%), 의약학(20편, 6.6%), 인문학(12편, 4.0%), 예술체육학(11편, 3.6%), 공학(9편, 3.0%), 자연과학(1편, 0.3%)과 농수산해양학(1편, 0.3%)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주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회과학 분야의 연구물의 15편 이상 게재된 년도는 2012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전에는 주로 사회과학과 복합학을 중심으로 성희롱 연구가 수행되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의약학, 예술체육학, 인문학 그리고 공학에서도 연구물이 새로이 등장하거나 증가하고 있어 성희롱 연구의 학문분야가 다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 연구물의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대·중분류에 따른 성희롱 연구의 학술지 게재 현황은 <표 6>과 같다. 학술연구분야 중분류 기준에 따르면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법학으로 92편(30.5%)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다음으로는 여성학과 행정학 21편(7.0%), 교육학 19편(6.3%), 학제간연구 18편(6.0%), 사회복지학 13편(4.3%), 사회과학일반 11편(3.6%)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학문 분야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선행연구인 서상희(2017)의 연구에서는 법학, 여성학, 간호학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결과로는 행정학과 교육학, 학제간연구 분야에서 성희롱 관련 연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간호학 분야는 다소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희롱 연구 학술지 학술연구분야 분류별 게재 현황 (n=302)

대분류(편수, 비율)	중분류
인문학 (12편, 4.0%)	한국어와문학(4), 일본어와문학(2), 기타인문학(1), 기독교신학(1), 철학(1), 역사학(1), 영어와문학(1), 언어학(1)
사회과학 (206편, 68.2%)	<b>법학(92), 행정학(21), 교육학(19), 사회복지학(13), 사회과학일반(11)</b> , 경영학(9), 기타사회과학(8), 사회과학(7), 심리과학(6), 신문방송학(5), 관광학(4), 지역학(3), 사회학(3), 경제학(2), 정치외교학(1), 국제·지역개발(1), 군사학(1)
자연과학 (1편, 0.3%)	통계학(1)
공학 (9편, 3.0%)	공학일반(5), 컴퓨터학(4)
의약학 (20편, 6.6%)	간호학(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3), 의약학(3), 치의학(2), 기타의약학(2), 산부인과학(1), 가정의학(1)
농수해양학 (1편, 0.3%)	수산학(1)
예술체육학 (11편, 3.6%)	체육(9), 미용(1), 예술일반(1)
복합학 (42편, 13.9%)	<b>여성학(21), 학제간연구(18), 과학기술학(3)</b>

성희롱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는 총 177종류였다. 성희롱 연구가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법학논집’과 ‘한국범죄심리연구’로 7편(2.3%)이었으며, 다음으로 ‘법학연구’, ‘이화젠더법학’,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로 6편(60%), ‘비서·사무경영연구’, ‘법학논총’, ‘한국경찰학회보’, ‘한국여성학’,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로 5편(1.7%)이 게재되었다. 연구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현황은 <표 7>과 같으며, 이들 학술지는 5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로 연구대상 논문 전체 302편 중에서 57편으로 18.9%를 차지하였다. 학술지 게재 현황에서도 학술연구분야 대분류상으로는 사회과학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복합학과 공학으로 나타났으며, 학술연구분야 중분류상으로는 법학, 행정학, 학제간연구, 경영학, 여성학, 공학일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편이 게재된 학술지는 44편(14.6%), 3편이 게재된 학술지는 18편(6.0%), 2편이 게재된 학술지 66편(21.9%)이었고, 1편이 게재된 학술지 117편(38.7%)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관련 연구는 특정 학문이나 학술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학술지에 다루고 있는 연구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 성희롱 연구의 학술지 게재 현황

순위	학술지명	편수	비율	대분류	중분류
1	법학논집	7	2.3%	사회과학	법학
1	한국범죄심리연구	7	2.3%	사회과학	행정학
3	법학연구	6	2.0%	사회과학	법학
3	이화젠더법학	6	2.0%	사회과학	법학
3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	2.0%	복합학	학제간연구
6	비서·사무경영연구	5	1.7%	사회과학	경영학
6	법학논총	5	1.7%	사회과학	법학
6	한국경찰학회보	5	1.7%	사회과학	행정학
6	한국여성학	5	1.7%	복합학	여성학
6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5	1.7%	공학	공학일반

## 2.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빈도 분석

성희롱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의 출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논문 등장 빈도수는 <표 8>과 같다. 999개의 키워드 중 논문에 1회 등장하는 키워드가 750개(75.08%), 2회 등장하는 키워드가 135개(13.51%), 3회 등장하는 키워드가 44개(4.40%)로 대부분의 키워드가 3회 이하로 연구되



었다. 이는 성희롱 연구가 다양한 키워드 즉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7편 논문에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검색어인 성희롱이었다.

〈표 8〉 키워드 논문출현 빈도

논문(편)	197	51	36	24	23	22	21	18	17	14	13	12
키워드(개)	1	1	1	1	1	1	1	1	1	3	2	1
누적비율(%)	0.10	0.20	0.30	0.40	0.50	0.60	0.70	0.80	0.90	1.20	1.40	1.50
논문(편)	11	10	9	8	7	6	5	4	3	2	1	
키워드(개)	1	3	3	9	7	7	6	19	44	135	750	
누적비율(%)	1.60	1.90	2.20	3.10	3.80	4.50	5.11	7.01	11.41	24.92	100.00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 중분류 기준으로 하여 10편 이상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의 키워드의 출현 빈도는 〈표 9〉와 같다. 주요 키워드는 전체 1,978개 키워드 중 출현빈도가 높은 순으로 상위 11회 이상 빈출한 16위까지의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표 9〉에서 학술지 분류별 빈도의 합계는 법학, 여성학, 행정학, 교육학이 논문 수에 비례하여 주요 키워드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키워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희롱을 제외하고 빈출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법학은 ‘성폭력, 직장, 성차별, 차별, 고용주, 피해자, 책임’으로 나타났고, 여성학은 ‘성폭력, 성차별, 젠더’으로 나타났으며, 행정학은 ‘직장, 성차별, 양성평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은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나타났고, ‘학제간연구’는 ‘폭력, 인식’이었으며, ‘사회복지학’은 ‘폭력, 괴롭힘’이었고, ‘사회과학일반’은 ‘근로자’로 나타났다. 법학은 학문분야 특성상 법률적 문제해결이나 다툼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났고, 여성학은 성희롱의 본질과 관련된 키워드가 등장하였으며, 행정학과 사회과학일반은 직장과 관련된 성희롱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교육학은 학문적 특성에 맞게 ‘예방교육’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학과 행정학 그리고 학제간연구는 논문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요 키워드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게재학술지 중분류별 주요 키워드 빈도 (n=302)

구분	법학 (92편, 30.5%)	여성학 (21편, 7.0%)	행정학 (21편, 7.0%)	교육학 (19편, 6.3%)	학제간연구 (18편, 6.0%)	사회복지학 (13편, 4.3%)	사회과학일반 (10편, 3.3%)
성희롱	68	13	17	10	11	3	5
성폭력	16	5	2	5	2	0	0
직장	18	1	4	1	0	1	1
성차별	9	3	4	1	0	1	0
인식	1	2	3	1	3	2	0
예방교육	6	0	3	5	2	1	0
폭력	3	1	0	0	4	3	1
차별	10	2	0	0	1	1	0
양성평등	5	2	4	0	1	0	0
고용주	12	0	0	0	0	0	0
괴롭힘	7	0	0	0	0	3	1
피해자	11	2	0	0	0	0	0
여성	3	2	1	0	1	0	1
책임	11	0	0	0	0	0	0
젠더	1	4	1	0	0	0	1
근로자	3	0	2	0	0	2	2
합계	184	37	41	23	25	17	12

요약하면, 성희롱 키워드 연구물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발간된 논문 302편의 키워드 수는 총 1,978개로, 평균 키워드 수는 6.54개였다. 1,978개의 키워드 정제작업을 거쳐 최종 999개의 키워드가 선정되었다. 성희롱 키워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각 키워드들은 1회에서 최대 197회까지 사용되었다.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통해 성희롱 연구의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자, 전체 논문에서 6번 이상 사용된 키워드를 추출하여 연도별로 2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표 10〉에 따르면, 전체 연구물에서 6번 이상 사용된 키워드는 총 45개이며 전체의 36.4%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사용된 키워드는 성희롱(197회, 9.96%)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폭력(51회, 2.58%), 직장(36회, 1.82%), 성차별(24회, 1.21%), 인식(23회, 1.16%), 예방교육(22회, 1.11%), 폭력(21회, 1.06%), 차별(18회, 0.91%), 양성평등(17회, 0.86%)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 키워드이자 가장 높은 빈출빈도를 나타내는 ‘성희롱’을 제외한 성희롱 연구의 연구기간별 키워드 출현 빈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연구초기인 2003년에서 2005년에는 ‘성폭력,

책임, 젠더, 불법행위'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았고, 2006년에서 2007년에는 '성차별, 상담' 키워드 빈도가 높았으며,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성폭력, 직장, 예방교육, 차별,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성폭력, 고용주, 책임'이, 2012년에서 2013년에는 '성폭력, 직장, 예방교육, 폭력'이,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성폭력, 직장, 인식, 폭력'이, 2016년에서 2017년에는 '직장, 차별, 여성, 대학생, 대학, 청소년'이,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성폭력, 직장, 인식, 폭력, 피해자, 성인지감수성, 미투운동'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연구물의 수가 급증한 이유도 있지만 미투운동 이후인 2018년과 2019년에 등장한 연구물에서는 '직장'이 검색어인 성희롱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는 것은 성희롱 연구에서 직장내 성희롱과 예방교육이 연구주제로서의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연구의 주요 키워드에는 직무명과 관련된 키워드는 '요양보호사'만이 등장하였고, 직무와 조직구조 그리고 조직문화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는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연구주제로서의 중요성과 '피해자'와 '폭력'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연구의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의 변화를 보면, 서상희(2017)가 성희롱 연구초기에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장소, 행위, 가해자의 지위 등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두고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공식적인 권력 차이에서 오는 성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진술 또는 요구를 통해 도구적인 관계가 성적으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성희롱의 기저에는 젠더와 차별 그리고 권력이 존재하는 것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기간인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예방교육, 양성평등'이었다. 반면 미투운동은 2018년과 2019년에 처음 등장한 키워드였으며, 2차피해와 자아존중감은 2014년과 2015에, 차별과 성범죄는 2008년과 2009년에, 조직문화는 2010년과 2011년에, 요양보호사는 2012년과 2013에 처음으로 등장한 키워드였다.

〈표 10〉 성희롱 연구의 연구기간별 키워드 출현 빈도 (n=1,978)

순 위	키워드	시기구분									전체 (302편, 100.0%)
		'03-'05	'06-'07	'08-'09	'10-'11	'12-'13	'14-'15	'16-'17	'18-'19		
		(19편, 6.3%)	(13편, 4.3%)	(30편, 9.9%)	(21편, 7.0%)	(38편, 12.6%)	(43편, 14.2%)	(49편, 16.2%)	(89편, 29.5%)		
1	성희롱	14	8	21	15	22	29	32	56	197	9.96%
2	성폭력	5	2	9	5	4	9	2	15	51	2.58%
3	직장	-	1	3	2	3	5	5	17	36	1.82%
4	성차별	2	4	1	1	2	2	7	5	24	1.21%
5	인식	1	-	-	2	2	6	1	11	23	1.16%
6	예방교육	1	1	3	2	3	2	4	6	22	1.11%
7	폭력	-	-	1	2	3	5	3	7	21	1.06%
8	차별	-	-	3	-	2	-	7	6	18	0.91%
9	양성평등	1	1	2	1	2	1	4	5	17	0.86%
10	고용주	2	1	-	3	1	2	2	3	14	0.71%
11	괴롭힘	1	-	2	-	2	-	4	5	14	0.71%
12	피해자	-	-	3	1	1	2	-	7	14	0.71%
13	여성	2	-	1	-	2	-	5	3	13	0.66%
14	책임	3	-	-	3	1	2	-	4	13	0.66%
15	젠더	3	1	1	2	-	1	1	3	12	0.61%
16	근로자	1	-	-	1	1	1	3	4	11	0.56%
17	국가인권위원회	-	1	3	2	2	-	1	1	10	0.51%
18	성인지감수성	-	-	1	-	1	-	-	8	10	0.51%
19	성	2	1	1	-	-	2	2	2	10	0.51%
20	대학생	1	-	-	-	-	1	4	3	9	0.46%
21	대학	-	1	-	-	1	1	4	2	9	0.46%
22	판단기준	-	-	-	2	3	1	-	3	9	0.46%
23	대처방식	-	2	-	-	2	-	1	3	8	0.40%
24	강간	1	1	2	-	1	2	-	1	8	0.40%
25	법	-	-	2	1	1	-	2	2	8	0.40%
26	인권	-	2	1	1	-	-	2	2	8	0.40%
27	성범죄	-	-	1	-	-	1	1	5	8	0.40%
28	조직문화	-	-	-	1	1	-	2	4	8	0.40%
29	통념	-	1	1	1	2	2	-	1	8	0.40%
30	청소년	-	-	-	1	1	1	4	1	8	0.40%
31	페미니즘	-	-	2	-	3	-	2	1	8	0.40%
32	경험	1	-	-	-	1	-	3	2	7	0.35%
33	불법행위	3	1	1	-	1	-	1	-	7	0.35%
34	미투운동	-	-	-	-	-	-	-	7	7	0.35%
35	성적언동	-	-	-	2	1	1	2	1	7	0.35%
36	인격권	1	-	1	-	1	1	2	1	7	0.35%
37	요양보호사	-	-	-	-	2	1	2	2	7	0.35%
38	정책	-	-	1	-	1	-	4	1	7	0.35%
39	2차피해	-	-	-	-	-	1	1	4	6	0.30%
40	범죄	1	-	1	-	-	3	-	1	6	0.30%
41	남녀고용평등법	-	-	2	-	1	-	2	1	6	0.30%
42	성추행	1	-	2	-	1	-	-	2	6	0.30%
43	상담	-	3	2	1	-	-	-	-	6	0.30%
44	예방	-	-	-	-	1	-	3	2	6	0.30%
45	자아존중감	-	-	-	-	-	2	1	3	6	0.30%
합 계		47	32	74	52	79	87	126	223	720	36.40%

### 3.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중심성 분석

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한 노드가 갖는 중심적인 역할의 정도를 표현한 것으로서, 중심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이수상, 2012). 성희롱 연구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한 개체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개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가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근접중심성은 한 개체가 다른 모든 개체들에 도달하려면 몇 단계나 필요한지로도 측정할 수도 있으며, 연결중심성은 실제로 노드에 연결된 노드의 수와 연결 가능한 모든 노드의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전체 키워드 내에서 중심에 있는 키워드를 파악하여 다른 키워드들과 가장 많이 연구된 키워드인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다른 키워드 및 연구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 성희롱의 세부 연구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이 큰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판별할 수 있다. 성희롱 연구의 주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결과 6회 이상 등장한 45개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중심성이 높은 순서는 <표 11>과 같다. 분석결과, 성희롱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의 순위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매개중심성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첫째,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모두 높은 키워드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직장, 예방교육, 차별, 여성, 피해자’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키워드는 연결중심성이 높아 다른 주제어와 많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중요한 핵심 주제어로 인정되고(성혜리 외, 2018), 근접중심성이 높아 짧은 단계로 다른 키워드와 연결될 수 있어 연결망에서 빠르게 정보를 확산 시킬 수 있고, 매개중심성이 높아 서로 다른 키워드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의 융합을 주도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다(우성미·오소영, 2019). 즉 성희롱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에 위치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 주제어를 중심으로 성희롱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핵심적인 주제어가 될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매개중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와 낮은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근로자, 책임, 통념’으로 나타났고, 낮은 키워드는 ‘대학생, 대처방식, 청소년, 남녀고용평등법, 예방’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책임, 통념’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거리도 밀접하고 많은 키워드와 연결된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반면,

〈표 11〉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중심성 (n=1,978)

순위	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 (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단어	중심성	단어	중심성	단어	중심성
1	성희롱	44	성희롱	0.023	성희롱	536.625
2	성폭력	31	성폭력	0.018	성폭력	153.759
3	성차별	29	성차별	0.017	성차별	123.735
4	직장	23	직장	0.015	직장	64.702
5	예방교육	19	예방교육	0.014	여성	44.180
6	차별	19	차별	0.014	예방교육	43.516
7	여성	19	여성	0.014	차별	39.833
8	피해자	18	피해자	0.014	피해자	34.400
9	인식	17	인식	0.014	폭력	32.091
10	폭력	17	폭력	0.014	대학	27.436
11	양성평등	16	양성평등	0.014	인식	27.147
12	대학	15	대학	0.014	양성평등	22.934
13	고용주	14	고용주	0.014	법	22.042
14	근로자	13	근로자	0.013	조직문화	15.887
15	판단기준	13	판단기준	0.013	대학생	15.608
16	조직문화	13	조직문화	0.013	고용주	15.595
17	책임	12	책임	0.013	판단기준	14.777
18	성인지감수성	12	성인지감수성	0.013	대처방식	13.775
19	성	12	성	0.013	근로자	13.709
20	법	12	법	0.013	인권	11.113
21	인권	12	인권	0.013	국가인권위원회	10.331
22	괴롭힘	11	괴롭힘	0.013	청소년	9.038
23	젠더	11	젠더	0.013	성인지감수성	8.727
24	국가인권위원회	11	국가인권위원회	0.013	책임	8.426
25	대학생	11	대학생	0.013	불법행위	8.000
26	대처방식	11	대처방식	0.013	남녀고용평등법	7.979
27	2차피해	10	2차피해	0.013	괴롭힘	7.702
28	강간	9	강간	0.013	젠더	7.308
29	통념	9	통념	0.013	성	6.249
30	청소년	9	청소년	0.013	인격권	5.933
31	불법행위	9	불법행위	0.013	미투운동	5.341
32	미투운동	9	미투운동	0.013	2차피해	5.054
33	인격권	9	인격권	0.013	페미니즘	4.491
34	정책	9	정책	0.013	성적언동	4.265
35	페미니즘	8	페미니즘	0.013	정책	3.982
36	경험	8	경험	0.013	범죄	3.655
37	성적언동	8	성적언동	0.013	성추행	3.575
38	범죄	8	범죄	0.013	요양보호사	3.400
39	남녀고용평등법	8	남녀고용평등법	0.013	경험	3.086
40	성추행	8	성추행	0.013	강간	2.213
41	성범죄	6	성범죄	0.012	예방	2.167
42	요양보호사	6	요양보호사	0.012	성범죄	1.867
43	상담	5	상담	0.012	통념	1.839
44	자아존중감	5	자아존중감	0.012	상담	0.508
45	예방	4	예방	0.012	자아존중감	0.000

‘대학생, 대처방식, 청소년, 남녀고용평등법, 예방’는 상대적으로 다른 키워드와의 거리나 연결정도는 낮지만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어라고도 볼 수 있다. ‘근로자, 책임, 통념’ 키워드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이 높은 키워드들인데 이들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밀접하고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연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법, 대학생, 청소년, 불법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예방’ 등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매개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는 ‘책임, 괴롭힘, 젠더, 2차피해, 강간, 통념’으로 나타났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키워드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여 다른 연구로 확산이 용이하게 하는 키워드들이다. 이들 키워드들은 성희롱이라는 연구주제의 틀에서 법과 청년, 그리고 예방이라는 키워드를 매개체로 하여 다른 연구와의 중개자 혹은 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반면, 매개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들은 다른 키워드들과의 매개 역할보다는 독립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키워드, 즉 연구주제로 볼 수 있다.

#### 4. 성희롱 연구의 네트워크 시각화

성희롱 연구의 네트워크 시각화에 앞서 성희롱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데이터마ining 기법의 하나로 텍스트 데이터를 간결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시각화 기법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단어들을 추출하여 개론적으로 핵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Heimerl et al., 2014). 결과의 표현은 원 등의 도형으로 제시되며, 단어(키워드)가 출현한 빈도가 높으면 크게, 낮으면 작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김남규 외, 2017; 이은영·주경희·이두희, 2019). 이는 방대한 자료 중 비구조화된 텍스트 속에서 키워드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주어 신속하지만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민경, 2020; 이은영·주경희·이두희, 2019). [그림 3]은 성희롱 연구에서 3회 이상 빈출 단어를 기준으로 한 성희롱 키워드 클라우드이다. 3회 이상 빈출한 단어는 114개로 전체 키워드 1,978개의 48.5%에 해당한다. [그림 3]을 살펴보면 상위 빈출단어를 중심으로 성희롱 연구에서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들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그림 4]는 성희롱 연구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총 65개의 키워드들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이들 키워드가 등장하는 횟수는 196회로 전체 키워드의 9.9%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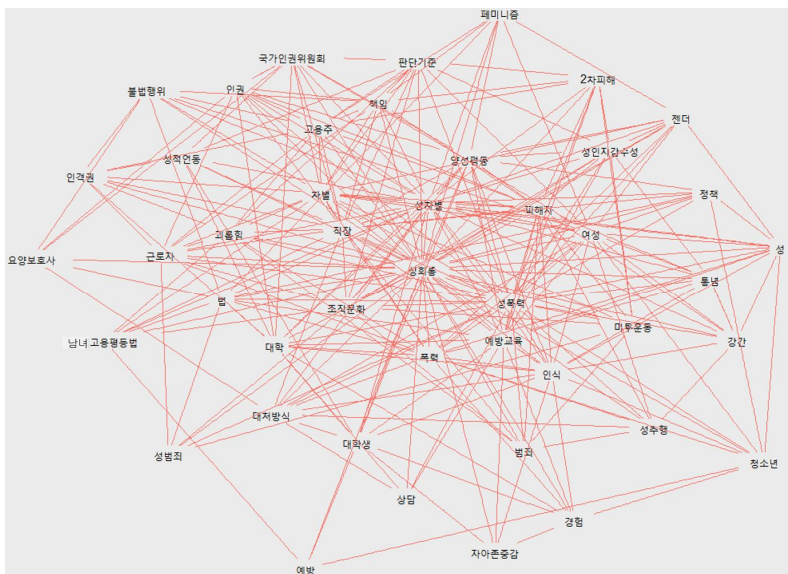
다. 이때 인물의 명칭을 유목화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파견직,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외국인과 중국인 등은 전자의 단어로 통일하였고, 여자운동선수, 여성선수, 엘리트선수, 국가대표선수, 학생선수 등은 운동선수로 통일하였다. 또한 접두어나 접미사 등은 생략하였는데 예비보육교사를 보육교사로 경비종사자는 경비원으로 통일하였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성희롱 연구에는 피해자, 고용주, 여성, 근로자, 대학생, 운동선수, 요양보호사, 의사, 비정규직, 교수, 간호사, 청소년 등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 이 키워드들이 성희롱의 주체나 가해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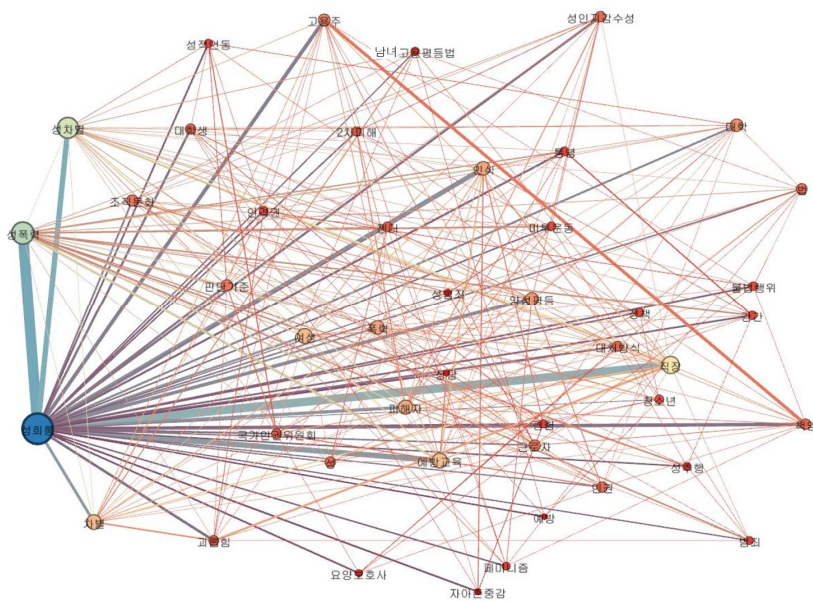
[그림 3]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 [그림 4] 성희롱 연구의 인물 워드 클라우드

성희롱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살펴보기 위해 상위 45개의 주요단어들을 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결중심성 네트워크를 시각화 하였고, 네트워크 및 복잡계 시스템의 시각화에 사용되는 도구인 Gephi를 이용하여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였다(이화진, 2020).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주요 키워드 추출된 45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희롱을 중심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직장, 예방교육, 차별, 여성, 피해자, 예방교육 등 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들이 역시나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45개의 키워드들은 다소 복잡하나 촘촘하게 연결된 형태로 파악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주요 키워드 빈도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중심에 위치하는 키워드는 ‘조직문화, 대학, 미투운동’ 이었으며, 반대로 빈도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키워드는 ‘젠더, 성, 국가인권위원회, 책임’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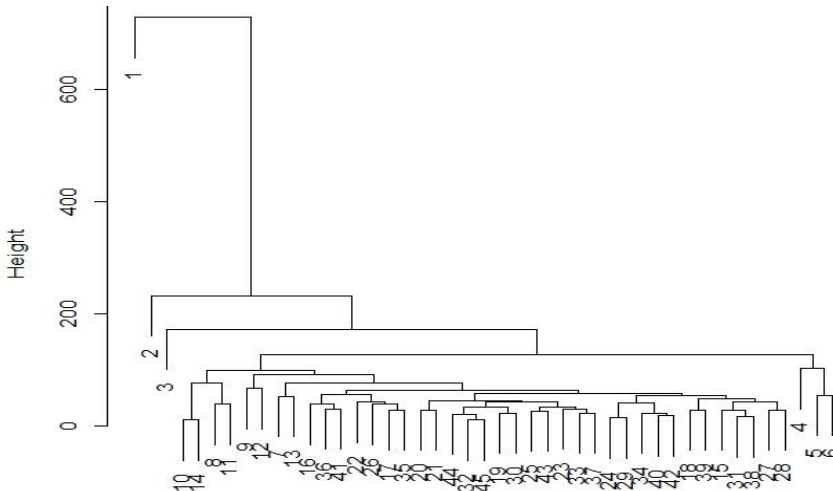


[그림 6]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그룹 네트워크

성희롱 연구 키워드 그룹 네트워크를 [그림 6]과 같이 색으로 그룹을 나타내었다. R 프로그램의 그래프에서 선의 폭과 화살의 크기, 화살의 폭이 네트워크의 연관성을 설명한다(허명희, 2014). 성희롱 연구 키워드 중 ‘성폭력, 성차별, 직장, 예방교육’ 등은 성희롱과 강력한 선과 폭을 나타내고 있어 독립적으로 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고, 그룹간에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키워드들이 다수 있었다. 첫째, 성희롱과 직장을 중심으로 한 ‘성희롱, 직장, 피해자, 고용주, 성차별, 차별, 근로자, 괴롭힘, 책임’으로 구성된 [직장내 성희롱] 그룹이 나타났다. 둘째, 성차별과 차별을 중심으로 한 ‘성차별, 성폭력, 성차별, 법,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언동, 판단기준, 조직문화, 인격권, 불법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차별’로 구성된 [법률관계] 그룹이 확인되었다. 셋째, 성희롱과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인식, 대처방식, 고용주, 미투운동’으로 구성된 [피해자] 그룹이 확인되었다. 넷째, 성희롱과 성폭력, 그리고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인식, 상담, 자아존중감, 직장’으로 구성된 [예방교육] 그룹이 나타났다. 다섯째,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한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성폭력, 젠더, 성, 조직문화, 미투운동, 통념, 양성평등, 페미니즘’으로 구성된 [성인지감수성] 그룹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 대학생, 양성평등, 인권, 경험, 성희롱, 통념, 성폭력, 성차별’로 구성된 [대학 실태] 그룹이 나타났다. 성희롱 연구의 특징이자 흥미로운 점은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의 키워드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매우 뚜렷하였다. 특히 성희롱 연구나 사건, 현상 등은 개별 당사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되는 연구여서 ‘네트워크의 경계선상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많았다.

추가적으로 ‘성희롱’ 연구에 사용된 주요 키워드들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하여 키워드 간의 연관성을 클러스터 덴드로그램(cluster dendrogram)으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군집분석은 주어진 많은 수의 연구대상자들을 상호 관련성에 의해 서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결국 전체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 분석방법이다(허명희, 2007). 덴드로그램은 군집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관측치의 군집화를 통해 형성된 그룹과 이들의 유사성 수준을 표시하는 트리 다이어그램으로 평균 거리 연결 방법을 적용하여 최소 단계 거리 행렬을 나타낸다(정성훈, 2016). 즉, 덴드로그램을 통해 ‘성희롱’ 연구 주제어 군집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체 군집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클러스터 덴드로그램은 상호 연계가 강한 두 쌍 사이에 짝을 맺어 주는 형태를 순차적으로 반복한다(최영출·박수정, 2011). 분석 결과, ‘성희롱’ 연구 주제어

는 ‘성희롱’을 축으로 ‘성폭력’과 ‘직장’으로 분화되고, 세부 하위 군집은 ‘고용주-책임, 차별-괴롭힘, 양성평등-피해자, 폭력-여성, 인격권-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성적언동, 대학생-대학, 경험-자아존중감, 성-청소년, 법-상담, 불법행위-요양보호사, 강간-통념, 범죄-성추행, 성인지감수성-2차피해, 페미니즘-정책, 성범죄-조직문화, 인식-예방교육’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성희롱 연구 주제어 덴드로그램<sup>2)</sup>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성희롱 연구의 흐름과 주요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연구의 결론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국내 성희롱 연구는 302편으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나 꾸준히 연구논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2018년에 연구물을 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볼 수 있었다. 다만 2019년에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연구물의 수가 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지는 않지만 성희롱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연구물의 수가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희롱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의 학술연구분야분류 대분류 기준으로는 사회과학과 복합학이,

2) 덴드로그램의 코드 숫자는 <표 11>의 순위 숫자와 동일함.

학술연구분야분류로 중분류 기준으로는 법학과 여성학, 행정학, 교육학, 학제간연구 분야가 성희롱 관련 연구논문 편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학문분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게재 학술지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법학 분야 학술지인 ‘법학논집’, ‘한국범죄심리연구’, ‘법학연구’, ‘이화젠더법학’와 복합학 학술지인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가 가장 높은 게재 수를 나타내었다. 즉 성희롱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성희롱 연구는 미투운동 이후에 연구물의 수가 급증한 것에 비추어 보면 다양한 학문분야 및 연구대상별 연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성희롱 관련연구의 법과 제도의 연구도 필수적이지만 성희롱의 대상과 범주가 다양해진 시점에서 대상별, 상황별, 직무별, 조직별 세분화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키워드 분석 결과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성희롱, 성폭력, 직장, 성차별, 인식, 예방교육, 폭력, 차별,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이들 키워드는 현재 성희롱 연구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연구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희롱 연구의 주요 키워드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초기인 2003년에서 2005년에는 ‘성폭력, 책임, 젠더, 불법행위’ 등의 키워드 빈도가 높였고, 2006년에서 2007년에는 ‘성차별, 상담’ 키워드 빈도가 높았으며, 2008년에서 2009년에는 ‘성폭력, 직장, 예방교육, 차별,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연구 중반기인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성폭력, 고용주, 책임’이, 2012년에서 2013년에는 ‘성폭력, 직장, 예방교육, 폭력’이, 2014년에서 2015년에는 ‘성폭력, 직장, 인식, 폭력’ 키워드 빈도가 높았다. 연구후반기인 2016년에서 2017년에는 ‘직장, 차별, 여성, 대학생, 대학, 청소년’이, 2018년에서 2019년에는 ‘성폭력, 직장, 인식, 폭력, 피해자, 성인지감수성, 미투운동’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키워드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성희롱 연구는 사회의 현상과 그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초기에는 성희롱과 관련된 개념 연구에서 중반기에는 실제 사례중심의 문제해결 연구로 후반기에는 성희롱 연구의 대상의 다변화와 피해자 목소리 확대중심의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었다. 키워드 분석은 연구자가 제시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키워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물의 대표성을 포함하는 주요 주제를 함축적으로 살펴보는 데 적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셋째, 성희롱 연구의 주요 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한 지표인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하였다. 성희롱 연구의 연결·근접·매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상위 8위까지는 다소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로, 이들 키워드는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직장, 예방교육, 차별,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들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들과 함께 연구되는 빈도가 높아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고, 다른 키워드에 영향을 미쳐 다른 연구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키워드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놓여 서로 다른 주제 간의 융합연구 또는 학제간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희롱 연구에서는 매우 독특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성희롱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의 순위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고, 매개중심성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키워드들 간의 거리와 강도가 가까워 일치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이 매개중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근로자, 책임, 통념’으로 나타났고, 매개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법, 대학생, 청소년, 불법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예방’ 등으로 나타났다. 중심성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성희롱 연구에서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심성이 낮은 키워드도 역시 현재까지 키워드들과의 관련성이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연구의 중요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중심성 분석의 대상이 된 키워드들은 성희롱 관련 연구의 키워드 중 상위 36.4%의 빈도 6회 이상 등장한 주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중심성이 높지 않더라도, 향후 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성희롱 연구의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넷째, 성희롱 연구의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연구 키워드인 성희롱을 중심으로 출현빈도수가 높았던 단어들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특징적인 것은 주요 키워드 빈도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중심에 위치하는 키워드는 ‘조직문화, 대학, 미투운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그룹은 직장내 성희롱, 법률관계, 피해자, 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대학 실태 등으로 6그룹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성희롱 연구를 성희롱 실태 연구, 성희롱 정책 및 법률 연구, 성희롱 개념 연구, 성희롱 피해 연구, 성희롱 상담 및 조사 연구, 성희롱 예방 연구로 분류하였던 서상희(2017)의 연구결과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보였다. 성희롱 실태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직장내 성희롱과 대학 실태로 세분되어 나타났고, 성희롱 정책 및 법률 연구는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 개념 연구는 성인지감수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희롱 연구의 여성학의 본질적 개념들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희롱 피해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형성되었고, 성희롱 예방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예방교육 키워드가 중심에 있었으며, 성희롱 상담

이나 조사 연구는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상담 키워드는 예방교육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희롱 연구는 직장 내 성희롱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서도 성희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이 직장과 관련된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희롱 성인지감수성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직무별, 고용형태별, 대상별 질적 제고와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와 조직문화 및 구조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연이어 일으킨 성추문으로 인해 여성비서를 배제한 남성비서 채용, 자치단체장 업무공간의 침대 및 휴식공간 없애기 등과 같은 문제해결방식이 제시되고 있어 성희롱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성들이 주로 종사하는 분야의 특정 직무에 대한 선입견과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과 문제해결 그리고 예방교육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제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성희롱 연구에 등장하는 인물과 관련된 키워드는 피해자, 고용주, 여성, 근로자, 대학생, 운동선수, 요양보호사, 의사, 비정규직, 교수, 간호사, 청소년 등이 등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등장한 키워드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다. 성희롱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키워드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들이다. 성희롱 관련 법률의 성희롱 행위요건에는 직장, 직위, 고용, 업무 등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의 고용구조는 파견직, 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의 보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성 근로자의 현실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개선책 등이 요구된다. 또한 성희롱의 사례는 사안별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어 여성이 다수로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별로 성희롱과 관련된 문제의 현안과 개선방안 등에 관련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성인지감수성과 인식이 기존의 대응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여성 세대들이 미투운동 및 적극적인 고발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여성 청년들의 성향과 특성, 인식에 대한 분석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지니는 의의와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성희롱 연구의 동향을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성희롱 연구의 연구물 특성과 연구대상인 키워드를 분석하여 성희롱 연구의 현황 분석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

여 성희롱 연구의 핵심 키워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네트워크 분석은 연구대상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으나, 학술논문과 연구보고서 등을 추가하여 분석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성희롱 연구가 게재된 국내 학술지 중 등재지와 등재후보지의 서지정보의 한 유형인 키워드를 이용하여 성희롱 연구를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이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의 근원적 한계를 지닌다. 즉 이 연구는 논문의 저자가 제시한 키워드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제 수행된 논문의 전체적인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논문의 키워드만으로는 연구 결과나 중요한 의미들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키워드 추출 과정에 있어 저자가 연구물에 제시한 키워드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하여 키워드 정제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연구자별로 키워드 표기방법이 상이하여 키워드의 표준화 작업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문가 또는 공동연구자와 상호 검토를 통하여 연구자 개인의 주관 이 배제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데이터 정제에 한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방법론적인 한계점으로 다른 선행연구(구경수·최연실, 2020; 조남옥·조규락, 2017) 역시 이러한 한계점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 키워드 정제 과정에서 연구자 간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키워드 정제 과정을 더욱 객관화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1,978개의 데이터 중 상위 45개의 키워드를 선정하여 연결성을 검토하였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즉 네트워크 분석은 빈도와 관계를 살펴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내용을 보기 어렵다는 연구방법론상의 제한점이 있다. 즉 질적연구와 같은 보완적 연구가 수반된다면 심층적인 의미 추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동향 분석은 시기 구분의 판단 기준 등이 명확해야 더 큰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성희롱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이 표면화됨에 따라 연구물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연구물이 축적되고 시기별 구분이 명료해진다면 연구동향을 훨씬 더욱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구경수·최연실(2020). “텍스트 마이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가족 치료 연구경향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 학술지(1993-2019년)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제28권 1호. 85-110.
- 권예진·차명호(201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리질리언스(Resilience)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제17권 6호. 105-121.
- 김계원·정종진·권희영·이운주(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3호. 521-542.
- 김남규·이동훈·최호창·William Xiu Shun Wong(2017). “텍스트 분석 기술 및 활용 동향”.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2권 2호. 471-492.
- 김민경(2020). “워드 클라우드 분석으로 본 에어비앤비 숙소의 인기 키워드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9권 4호. 347-363.
- 김보화(2019). “성폭력 상담일지를 통해 본 2018년 한국 미투 운동의 의미”. *페미니즘 연구*. 제19권 2호. 3-43.
- 김용학·김영진(2016). *사회 연결망 분석(제4판)*. 서울 : (주)박영사.
- 김정아(2019). “성희롱 인식, 자아존중감,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희롱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비서·사무경영연구*. 제28권 1호. 91-111.
- 박수정(2014). “한국 중등교사 양성교육 연구 경향 분석”. *교육학연구*. 제52권 제3호. 1-28.
- 서상희(2017). “국내 성희롱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학*. 제33권 2호. 281-315.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 :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성혜리·이정림·김영지·김정식(2018). “텍스트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보완대체요법의 국내 연구 동향”. *재활간호학회지*. 제21권 2호. 61-70.
- 손미·정주훈·김영환(2016). “『교육정보미디어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20년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22권 1호. 31-53.
- 신세인·하민수·이준기(2017).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과학교육영역에서의 진로교육 연구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6호. 293-312.
- 신은주(2017).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서울 : 여성가족부.
- 오삼광(2011).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성미·오소영(2019). “주제어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국내 여성리더십 연구 동향”. 여성연구. 제101권 2호. 5-34.
- 이나영·김교성·이현정(2014).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희롱 인식 수준과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41권. 33-58.
- 이미정(2012). 대학내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부일(2017). 2017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인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이성용·김진호(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지적장애연구’ 학술지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지적장애연구. 제19권 제1호. 1-19.
- 이수상(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 논형.
- 이은영·주경희·이두희(2019).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한 최근 소비자학 연구 트렌드 분석”. 상품학연구. 제37권. 1-7.
- 이종임·홍주현·설진아(2019). “트위터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과 젠더 갈등 이슈 분석 : 네트워크 분석과 의미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4권 2호. 99-146.
- 이화진(2020).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비서 연구 동향”. 비서·사무경영연구. 제29권 2호. 103-129.
- 임정연·윤지영(2018).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직장여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제57권 1호. 201-236.
- 정성훈(2016). “네트워크 분석과 하위 방언 구획 연구”. 한글. 제311권. 227-256.
- 정혜영·정혜영·손유진(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4권 2호. 283-308.
- 조규락·김찬희(2016). “국내 교육공학 학문공동체의 지식 구조의 모습과 특성 탐색: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통한 교육공학연구와 교육정보미디어연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제32권 3호. 571-609.
- 조남옥·조규락(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연구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탐색”. 상담학연구. 제18권 2호. 1-19.
- 최영출·박수정(2011). “한국행정학의 연구경향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제45권 1호. 123-139.
- 최은경(2019). 미투 운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성범죄 국민 인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춘식(2019).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토지

- 공법연구. 제88권. 313-331.
- 한희정·전해정(2015). “한국사회의 성희롱 개념 연구 :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1권 1호. 7-128.
- 허명희(2007). SPSS Statistics 분류분석. 서울 : 데이터솔루션.
- 허명희(2014). R을 활용한 사회네트워크분석 입문. 경기도 : 자유아카데미.
- 다음백과사전 www.daum.net에서 2020.2.5. 인출.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에서 2020.7.17. 인출.
- 한국일보(2020.7.20.). “골반 넓어서 애 잘 낳겠네...박원순 사건이 '내일' 같다는  
 국회 참모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517303>에서 2020.7.25 인출.
- KBS(2020.7.24.). “5년간 성폭력 공무원 천명 중 절반은 교육공무원...수사 시작  
 되면 직위해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1961>  
 에서 2020.7.25. 인출.
- Braam, R. R., Moed, H. F., & van Raan, A. F. J. (1991). Mapping of  
 science by combined co-citation & word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4), 233-251.
- Hunt, C. M., Davidson, M. J., Fielden, S. L., Hoel, H.(2010). Review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an intervention model,  
*Personnel Review*, 39(5), 655-673.
- Heimerl, F., Lohmann, S., Lange, S., & Ertl, T.(2014). Word cloud  
 explorer: Text analytics based on word clouds, *In 2014 47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1833-1842. IEEE.

Abstract

## Analysis on Research Trends of Sexual Harassment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Wha Jin Lee\*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s of sexual harassment research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keywords in articles from 2003 to 2019 containing 'sexual harassment' retrieved from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database, which provides a range of academic information on domestic journals and articles. Finally, 302 related studies were selected from the KCI list of academic articles, and 999 keywords were extracted by refining the keywords.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a refinement process, and 45 keywords were selected based on the word frequency above 6 times. The selected keywords were converted to matrix data and analyzed by social network analysis. The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frequency analysis,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use of keywords for analyzing the main concepts of the researc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workplace, sexism, awareness, preventive education, violence,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ality were among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in the articles. Second, sexual violence, sex discrimination, workplace, preventive education, discrimination, women and victims showed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betweenness centrality respectively, except for sexual harassment. Third, the keyword network was visualized. Based on an analysis of the keyword network analysis index, this study diagnoses the past and present of sexual harassment research and suggests future research directions. Overall,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because they provide a conceptual reference point that can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harassment research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on sexual harassment.

**Keywords :** Sexual Harassment, Keyword, Network analysis, Korea Citation Index, Research Trend

---

\* Corresponding Author : Assistant Professor, Hanyang Women's University